

“지역기업 무역장벽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돕겠다”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

19세기 후반 쇠락하던 대한제국은 서구 열강, 일본 등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권을 노리고 달려든 강대국들은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건설 장비와 그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면세'였다. 1897년 3월 8일 경인선 부설권을 허가 받은 미국 공사가 당시 외무부 대신 이완용에게 이를 관철시킨 뒤 너도나도 대한제국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관세가 적용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개항과 함께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가 구축된 뒤부터다. 당시 명칭은 해관(海關)이었다. 항공원이 없었으니 바다로 들어오는 물물에 대해서 관청을 설립, 세금을 거둬서 때문이었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과 함께 6개월 뒤 조·일무역규칙에 따라 일본은 무관세로 무역을 하며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우리나라가 관세라는 것을 부과한 것은 1882년 5월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일반 상품에 10%, 사치품에 30% 수준을 징수했다. 해관은 1907년 4월 세관으로 바뀌고, 불법적인 한일강제협약으로 일본 세관에 흡수되었다.

일찌감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중세 유럽에서도 관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 베네치아는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탄불)과의 비관세 무역



으로 부유해졌으며, 독일의 한자동맹 역시 가입한 도시 간 관세를 없애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중세도시의 군주 대부분은 관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해당 도시의 산업·상업을 보호하고 독점 권한을 가졌다. 높은 관세가 마찰을 일으켜 전쟁이 나고, 동맹국과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 관세는 국가 간 관계를 설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며 자유무역을 추구해왔으며, 그에 따라 농업·공업·상업·금융 등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성장·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47~1994년까지의 GATT

지역·국가 경제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호의적 인식 중요 7월 취임후 지역기업 자주 찾아 애로 듣고 수출 확대 방안 적극 모색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그 후 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이들 기구는 관세율 인하를 통한 세계 교역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1세기부터 다자간 협상보다는 각국이 상대국과 직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보장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EFTA, 2007년 7월 아세안, 2011년 7월 EU, 2012년 3월 미국, 2015년 12월 중국 등과 FTA를 체결·발효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고관세, 보복관세 등에 의한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경제·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끼리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관세동맹' 양상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세계경제 속에 관세를 둘러싼 갈등·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약 밀수도 급증하며 세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을 지키며 사람·물자 교류의 최전선에서 이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세관 업무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해 제주와 경남 일부(하동군 금성면)까지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광주본부세관이다. 수출입 통관업무 지원, 밀수·부정무역과 불법 외환거래 단속, 마약 국내 유입 단속업

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관내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동수(56) 광주본부세관장을 만났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세무대를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한 뒤 광주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57년 목포세관 광주 감시소로 출발했다. 1980년 전라지역을 관리·감독하는 세관으로 승격했고, 현재 군산세관, 전주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광양세관 등 6개 관역내 세관과 안동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 등 3개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이다.

—취임 이후 지역기업에 자주 찾고 있다.(그는 지난 7월 취임했다.)

▲지금까지 گیا자동차·광주공항, 보해양조,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을 둘러봤다. 이 가운데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향토기업 보해양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1950년 설립 시부터 변함없이 전통 발효주와 희석주 등 다양한 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과 기업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줬다. 특히 건강한 암반수로 만들어 내는 상품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라인을 줄여야 할 정도라는 토로를 들었는데, 앞으로 코트라와

연계해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다. 특히 전통와인에 해당하는 복분자는 충분히 세계 경쟁력을 가졌다고 본다.

—세관에서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세관이 관세를 징수하고 국경을 지키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기보다 지역기업들이 세계의 관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징수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의 수출입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잘 되게 돕는 것도 세관의 업무 중 하나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성장하려면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도 운영중이다.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오일탱크 업체의 불랜딩(시장 수요 및 환경 기준 등에 맞게 여러 종류의 석유제품을 혼합·조정하는 행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문제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늘리고, 영세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등 지자체와 코트라 등 수출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마존(amazon.com)에 입점시키는 등 수출길을 열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경영자,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고 세관의 할 일을 더 찾아보겠다.

—광주 근무는 처음인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신세계 다음 매장 규모 확대 리뉴얼 오픈

광주신세계가 지역 최초로 디올(Dior) 여성 부티크를 선보여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일 “지난 30일 본관 1층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매장이 기존 매장보다 규모를 확장, 의류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리뉴얼을 통해 디올 부티크에서는 기성복을 비롯해, 핸드백, 구두, 주얼리 등 다양한 여성 용품들을 판매한다. 특히 올 겨울을 겨냥해 디올 여성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디자인한 2024 디올 겨울 컬렉션 의상들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디올 겨울 컬렉션은 지난 1960년대 후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라이프스타일에 맞으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상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브랜드 시그니처인 미스 디올을 담고, 자유로운 실루엣으로 여성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에

재오픈한 디올 여성 부티크에서 겨울 신상품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기술원, 하수관 퇴적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웹스 카메라 이용 실시간 측정

한국광기술원이 최근 깊이(Depth) 카메라를 이용해 하수관로 내부 퇴적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의 배수용량이 초과되어 월류수로 인한 침수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히 노후 하수관은 내부 퇴적물로 인한 배수능력 감소로 침수 위험이 커지며, 국내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하수관로의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하수관로 상태 조사는 주로 CCTV를 이용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퇴적량에 대한 검사는 사람이 하수관로 내부에 진입해 실

측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통해 판독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관 상태 진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한국광기술원과 ㈜수도씨엔지가 공동개발한 하수관로 퇴적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 CCTV 대신 웹스 카메라를 기반으로 개발돼 실시간 관내 상태 확인과 정량적인 퇴적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웹스 카메라 측정 모듈로 촬영한 하수관로 내부 데이터를 2D 이미지, 깊이 지도(Depth Map), 3D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형태로 수집한다. 산출 데이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부 제정 표준 메뉴얼에 따라 퇴적량, 퇴적물, 퇴적결함 등급을 정량적으로 판독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떡깨비·땡겨요’ 할인쿠폰 배달 받으세요

전남도 매월 1인 2회 5000원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2를 시작했다. 공공·상생배달앱을 사용하는 누구나 매월 1인 2회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착한 배달앱이다.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소비자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내려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신규 가맹 시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짜배달 가맹점에 월 20만원 상당의 배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5000원 할인 쿠폰 등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생배달앱 땡겨요는 신규 가맹 시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첫주문 할인과 주문금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3000원 할인쿠폰(1인 1회),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기간 배달비 3000원 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상생배달앱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1을 추진했다. 소비자에게 매월 1인 4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 결과 전달보다 배달앱 매출액이 떡깨비 125%, 땡겨요 163%가 증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겪이지 않는 주담대...우리銀 무주택자만 대출 ‘초강수’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좀처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짧아도 두세 달 안에 가계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불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보다는 적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의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사실을 고려하면 두 달째 유례가 없는 급증세가 이어진 셈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35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6	13	19	21	33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53,726,125	9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687,794	91
3	5개 숫자일치				1,296,632	3,417
4	4개 숫자일치				50,000	163,808
5	3개 숫자일치				5,000	2,654,691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소진...추가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이 2일부터 “2024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한다. 광주신보는 앞서 3월부터 광산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7월 자금이 모두 소진돼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특례보증 추가 시행은 광산구청과 농협은행이 2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보가 광산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24억원을 공급하기로 협약하면서 성사됐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로, 최대 2000만원을 농협은행과 서광주·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본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광산구청은 1년간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계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조기소진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보증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차의 또 다른 효능’



“현재 우리나라 차(茶) 시장 규모는 1조40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차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지금 차에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차 전문가인 조경총(전 전남대학교 교수)이 지난 30일 광주경총(광주경총)이 주최한 제1660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좋은 차는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 회장은 “4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중국에 20년, 차에 20년 미처 살았던 것 같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차의 기원설부터 전파, 분류, 제다 공정, 성분, 효능, 차문화, 가치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차는 일반이든 갈증을 해소하고 한 시간이면 느긋해지고 한 달이면 건강해지고 평생 마시면 장수한다고 한다”며 “차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세균 억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예방, 암세포 번식 억제,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숙취 제거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미

국 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푸드도 알려진 차는 차 유식성분으로 영양기능, 감각기능, 생체조절기능 등 3가지 기능을 가져 앞으로 그 쓰임새가 더 무궁무진해질 것이라고 조 회장은 전망했다.

조 회장은 “차 문화 가치는 정신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물질적 가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치는 향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차 산업도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보다 고도화, 규모화 등이 필요하며 기업인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과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사랑 나눔 리브살 소비촉진 MOU’를 체결했으며, 농협 광주본부는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경총에 쌀 200포대(20kg)를 기증했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해 34년간 계속 이어져온 국내 최장수 포럼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